

호주 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

〈목 차〉

- I. 호주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 II. 호주 금융시스템 현황
- III. 호주 금융시스템 주요 특징
- IV. 국내은행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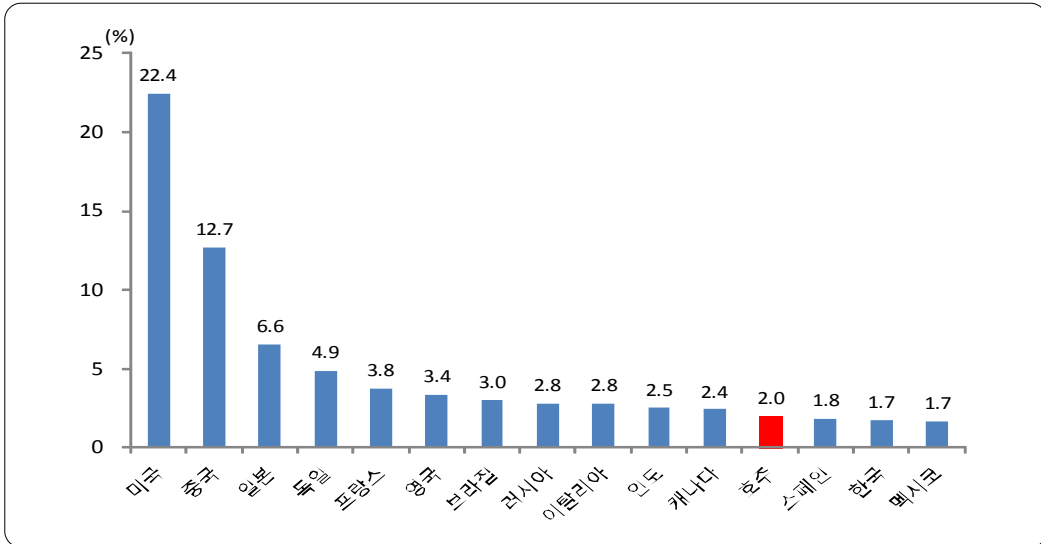
I 호주 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금융산업

1. 경제 개황

- ▶ 호주는 '13년 명목 GDP 기준 세계 12위, 성장성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우위
 - '13년 기준 GDP(명목)는 1조 5,059억달러로 전세계 GDP(74.7조달러)의 2.0% 차지
 -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4위(한국 5위)
 - 한편, '13년 1인당 GDP는 64,578달러 기록(한국 25,975달러)

* 본고는 변현수 파트장 · 이시은 선임연구원 · 윤경수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3년 기준 전세계 GDP 대비 국가별 비중



자료 : IMF

- 과거 23년간('92~'14년) 연평균 실질 GDP성장률은 3.3%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 시현
 - 이는 아시아지역 등 신흥국 원자재 수요 지속,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에 기인
 - 또한 동 기간중 경기후퇴(Recession)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도 성장 지속성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특징

국가별 연평균 GDP성장률('92~'14년) 및 경기후퇴 경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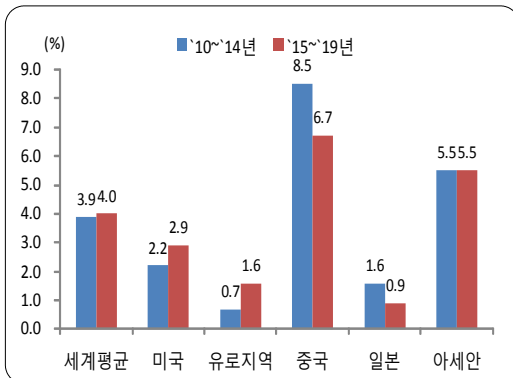
| 지역/구분 | 선진국(Developed Economies) | | | | | 개발도상국(Developing Economies) | | | | |
|--------------|--------------------------|-----|-----|-----|-----|-----------------------------|-----|-----|-----|-----|
| | 호주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중국 | 인도 | 한국 | 대만 | 브라질 |
| GDP 성장률 | 3.3 | 2.6 | 2.4 | 1.3 | 0.8 | 10.1 | 6.6 | 4.9 | 4.6 | 2.9 |
| Recession 횟수 | 0 | 2 | 2 | 3 | 5 | 0 | 0 | 1 | 2 | 2 |

주 : Recession 횟수는 연간기준 GDP가 전기대비 2분기 이상 연속 감소한 횟수를 의미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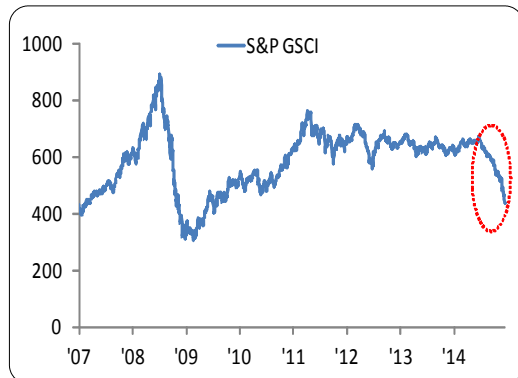
- 향후에도 호주 경제는 연평균 3.0%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다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에 기인한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개발 위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 * '15~'19년 중 국가별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 기준
 - ** S&P GSCI(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골드만삭스 개발 상품지수) 최근 하락세 : 632('13말)→648('14.3월)→658(6월)→574(9월)→418(12월)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IMF

S&P GSCI 추이



주 : S&P GSCI 구성 원자재 비중은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70%, 농산물15%, 산업용 금속 7% 등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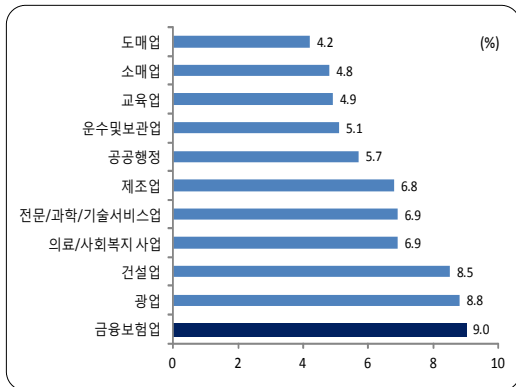
2. 금융산업 비중

▶ 호주는 서비스산업 중심* 국가로서, 특히 금융산업은 호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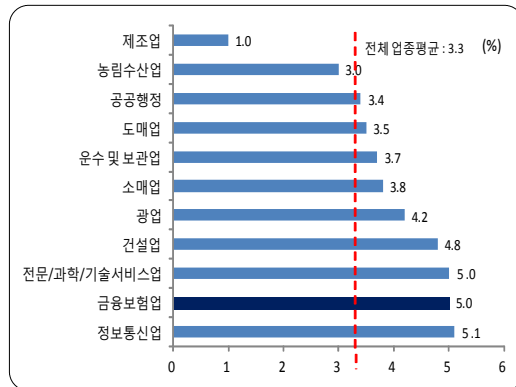
- * 총부가가치대비 서비스업 비중 82.0%
- '14.6월 현재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대비 금융산업 비중(금융보험업 기준)은 9.0%로 호주 경제성장 기여도 1위를 기록
 - 반면, 제조업 비중은 6.8%로서 한국의 31.1%와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
- '92~'14년중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에 있어서도 금융산업은 5.0%로 정보통신업에 이어 2위를 차지

- 이는 전체업종 평균 성장률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한편, 제조업은 연평균 1.0%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체업종중 최하위 기록

총부가가치 대비 업종별 비중



'92~'14년중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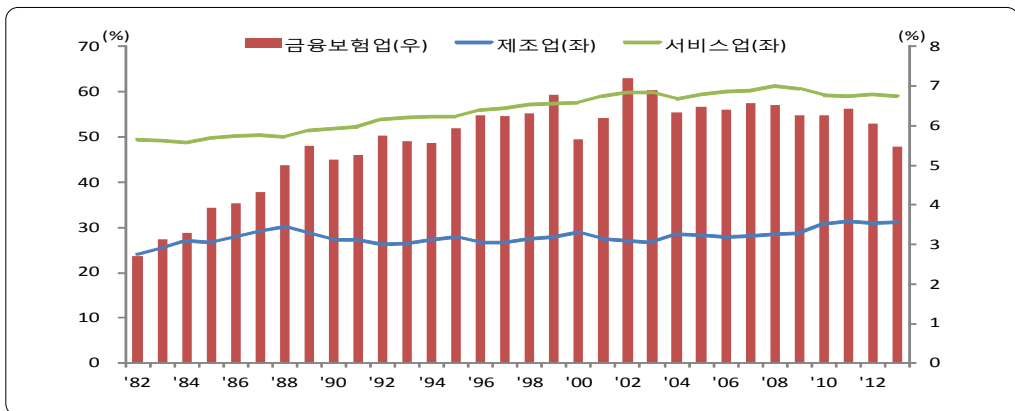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참고> 한국 금융산업 비중 추이 : 호주와 비교

▶ 총부가가치 대비 한국 금융산업 비중, 5%대로 하락

- 한국 금융산업(금융보험업) 비중은 '80년대초 2~3%대에서 '00년대 6%대로 상승후 정체하다가 최근 하락
 - 특히, '11년 이후 하락하여 '13년에는 5.5%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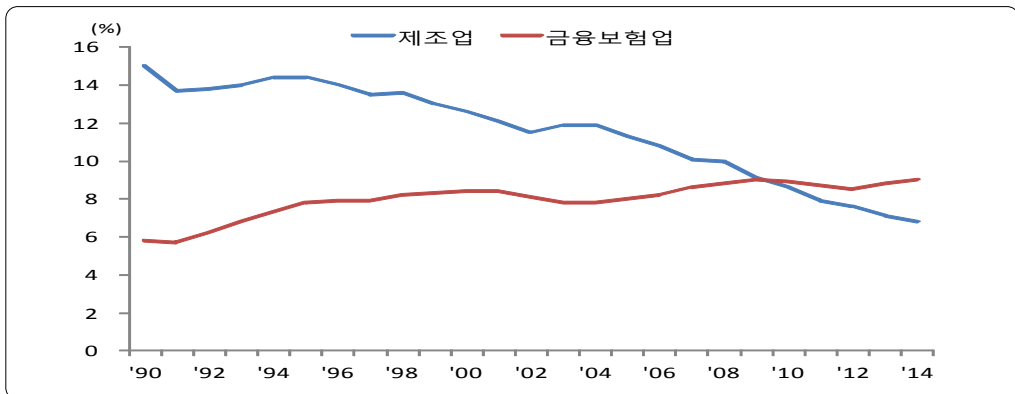
한국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금융산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반면, 호주 금융산업(금융보험업) 비중은 '90년대초 6%대에서 상승하여 '14년에는 9.0% 기록

호주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금융산업 비중 추이



주 : 호주는 6월 결산, '14년은 '14.6월 기준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II 호주 금융시스템 현황

1. 개황

▶ 호주 금융발전정도는 세계적 수준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 기준으로 호주는 조사대상 62개국중 5위
 - 특히, Non-Banking Financial Services Pillar중 M&A 활동, 금융증권화 정도 (Securitization), Financial Access Pillar중 소매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국가별 Financial Development Index 현황(62개국중 순위)

| | 홍콩 | 미국 | 영국 | 싱가포르 | 호주 | 일본 | 한국 | 중국 |
|--------------------------------|----|----|----|------|----|----|----|----|
| Overall Index | 1 | 2 | 3 | 4 | 5 | 7 | 15 | 23 |
| Non-Banking Financial Services | 10 | 1 | 3 | 12 | 5 | 6 | 2 | 4 |
| Financial Access | 4 | 5 | 12 | 14 | 6 | 27 | 22 | 41 |
| Banking Financial Services | 1 | 21 | 2 | 10 | 7 | 3 | 20 | 17 |
| Financial Markets | 4 | 1 | 2 | 3 | 8 | 5 | 14 | 21 |
| Financial Stability | 8 | 38 | 43 | 3 | 9 | 19 | 44 | 20 |
| Business Environment | 2 | 13 | 8 | 1 | 12 | 19 | 15 | 47 |
| Institutional Environment | 9 | 13 | 2 | 1 | 18 | 15 | 34 | 35 |

자료 :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12

- 호주 4대 은행은 글로벌 40~50위권으로 양호한 신용등급 보유

호주 4대 은행 주요 현황

| | Commonwealth Bank Group | National Australia Bank | ANZ Banking Group | Westpac Banking Corporation |
|--------|-------------------------|-------------------------|-------------------|-----------------------------|
| 글로벌 순위 | 42위 | 43위 | 50위 | 53위 |
| 신용등급 | AA- | AA- | AA- | AA- |

주 : 1) 글로벌 순위는 '13년 기본자본 기준, 2) 신용등급은 '14.6월 기준

자료 : The Banker誌, Fitch

▶ 호주 금융산업 구조

- 호주 금융기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
 - ADIs(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s), Non-ADI FIs(Financial Institutions) 및 Insurers and Fund Managers
 - 감독기관은 건전성감독청(APRA*)와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양분
 - RFC, Public Unit Trusts, Cash Management Trusts 등은 ASIC의 규제를 받고 나머지는 APRA의 규제 대상임
 -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 금융기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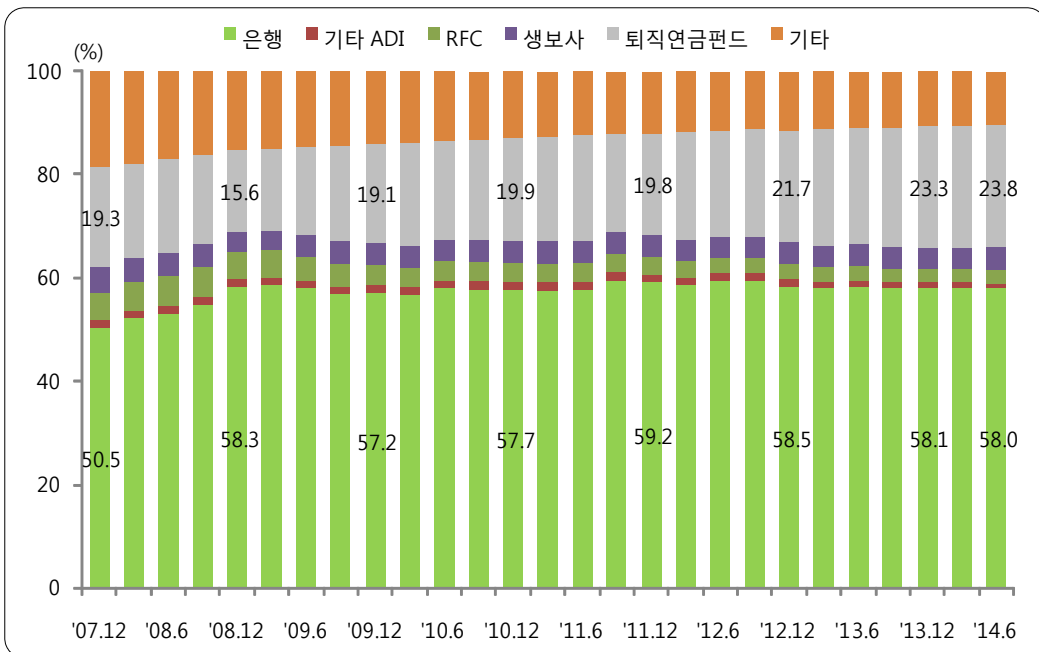
| 분류 | 금융기관 | 주요 특징 |
|-----------------------------|---|---|
| ADIs | Banks | - 모든 경제 주체앞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자회사 통해 펀드관리 및 보험서비스 제공 가능 |
| | Building Societies | - 주로 가계로부터 수취한 예금으로 모기지금융 및 결제서비스 제공 |
| | Credit Unions | - 회원간 상호소유 형태로 회원앞 개인 및 주택대출, 결제서비스 제공 |
| Non-ADIs | Money Market Corporations ¹⁾ (Merchant Banks) | - 도매시장에서 주로 영업, 대기업과 정부기관앞 기업금융, 자문서비스, 외환서비스 등 도매금융 제공 |
| | Finance Companies ¹⁾ | -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가계 및 중소기업앞 대출 서비스 제공 |
| | Securitisers | - ABS를 발행하는 특수목적기구 |
| Insurers and Funds Managers | Life Insurance Companies | - 생명보험, 상해보험, 연금상품 등 제공, 자산은 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 |
| | Superannuation Funds | - 퇴직연금펀드, 전문운용가에 의해 관리 |
| | 기타 관리펀드 | - Public Unit Trusts ²⁾ , Cash Management Trusts ³⁾ , Common Funds ⁴⁾ , Friendly Societies ⁵⁾ 등 |

주 : 1) RFC(Registered Financial Corporations)에 해당
 2) 주식,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투자, 은행 자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주로 운용
 3) 투자자산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제한되는 단위투자신탁
 4)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동투자자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 모기지, 주식 등에 투자
 5) 상호소유 형태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 은행, 퇴직연금펀드(Superannuation Funds)가 금융산업 지배
 - '14.6월말 현재 호주 금융산업내 은행산업의 비중*(총자산 기준)은 58.0%로 1위를 차지
 - * '14.6월말 현재 총자산 기준 한국 금융산업 규모는 3,575.5조원, 은행산업 규모 및 비중은 각각 2,178.5조원, 60.9%
 - 퇴직연금펀드는 23.8%를 기록하여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 금융위기 직후 '08년말 15.6%까지 하락했으나 '09년부터 증가세

호주 금융산업 구조 : 총자산 기준 금융기관별 비중



주 : RFC는 Money Market Corporations와 Finance Companies의 합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2. 은행산업 현황

가. 개관

▶ 호주 은행산업은 크게 국내은행, 외은 자회사, 외은 지점으로 구성

- 연결 기준으로 호주에서 영업중인 은행 수는 68개이며 이중 국내은행은 4대 은행과 17개의 기타 국내은행으로 구성
- 4대 은행이 은행산업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 '14.9월말 현재 4대 은행의 연결 기준 총자산은 3.2조 호주달러로 전체 은행산업(4.1조 호주달러)의 79.6% 차지
 - 금융위기때 67%대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하면서 4대 은행의 비중*이 더 확대되는 모습
 - * 추이(%) : 70.5('06.12) → 67.6('08.9) → 79.1('11.12) → 79.9('13.12)
 - 주요 이익지표의 4대 은행 비중을 살펴보면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은 80.8%, 당기순이익은 85.2%를 차지

'14년중 호주 은행산업 주요 성과 지표(연결 기준)

(단위 : 십억호주달러, 개, %)

| | 전체 (a) | 4대 은행 (b) | 기타 국내 | 외은 자회사 | 외은 지점 | (b/a) |
|-----|-----------|--------------|----------|-----------|----------|-------|
| 총이익 | 98.1 | 79.3 | 10.6 | 3.5 | 4.7 | 80.8 |
| 순이익 | 32.0 | 28.3 | 1.8 | 0.9 | 1.0 | 85.2 |
| 총자산 | 4,082.2 | 3,248.3 | 362.5 | 112.6 | 358.9 | 79.6 |
| ROA | 0.8 | 0.9 | 0.6 | 0.8 | - | - |
| ROE | 14.8 | 15.6 | 8.1 | 8.3 | - | - |
| 개수 | 68 | 4 | 17 | 7 | 40 | 5.9 |

주 : 1) 총자산과 개수는 '14.9월말, 나머지는 '14.6월말 기준

2)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과 순이익은 '13.Q3 ~ '14.Q2 기간의 실적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호주 4대 은행 주요 경영실적

(단위 : 십억달러, %)

| | National Australia Bank (NAB) | | Westpac Banking Corp. (Westpac) |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BA) |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NZ) | |
|---------|-------------------------------|--------|---------------------------------|--------|--------------------------------------|--------|---|--------|
| | '08.9 | '14.9 | '08.9 | '14.9 | '08.6 | '14.6 | '08.9 | '14.9 |
| 기본자본 | 20.2 | 34.8 | 12.2 | 30.6 | 16.2 | 35.4 | 17.0 | 33.8 |
| 총자산 | 525.2 | 773.1 | 351.6 | 674.6 | 469.3 | 745.5 | 376.0 | 675.7 |
| 총이익 | 11.3 | 16.5 | 8.9 | 17.4 | 13.3 | 15.7 | 9.1 | 14.8 |
| 당기순이익 | 3.6 | 4.6 | 3.1 | 6.7 | 4.6 | 8.1 | 2.7 | 6.4 |
| ROA | 0.74 | 0.63 | 0.96 | 1.04 | 1.04 | 1.12 | 0.77 | 0.99 |
| ROE | 14.46 | 11.24 | 21.08 | 15.74 | 19.07 | 18.23 | 13.69 | 15.35 |
| NIM | 1.92 | 1.68 | 1.82 | 1.95 | 1.81 | 2.05 | 1.96 | 2.02 |
| Tier1비율 | 7.35 | 10.81 | 7.80 | 10.60 | 8.17 | 11.10 | 7.71 | 10.70 |
| BIS비율 | 10.93 | 12.16 | 10.80 | 12.30 | 11.58 | 12.00 | 11.10 | 12.70 |
| NPL비율 | 0.49 | 0.72 | 0.37 | 0.40 | 0.18 | 0.53 | 0.74 | 0.51 |
| 커버리지비율 | 137.88 | 79.85 | 165.25 | 148.75 | 250.81 | 121.96 | 134.67 | 146.64 |
| 예대율 | 190.09 | 139.17 | 182.23 | 142.58 | 172.52 | 137.30 | 177.41 | 130.58 |

주 : 총이익은 이자이익+비이자이익, 커버리지비율은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자료 : Bankscope

나.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영지표 추이

▶ 자본적정성 : 자본비율 및 자본의 질 향상

- BIS총자본비율과 Tier1비율 모두 금융위기 이전 대비 향상
 -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력을 증가
 - Tier1비율은 '07년말 7.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4.9월말 10.7%를 기록(총자본비율 : 10.2% → 12.3%)
- 자본의 질적 구성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개선
 - '08~'12년(바젤 III 도입 이전)중 총규제자본(공제전, Tier1+Tier2) 대비 Tier1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 추이(%) : 69.8('08.9) → 84.0('10.12) → 87.7('11.12) → 89.1('12.12)
 - Tier1 대비 보통주 비중도 '08.9월 81.1%에서 '12년말 89.1%로 상승

금융위기 전후 자본적정성 지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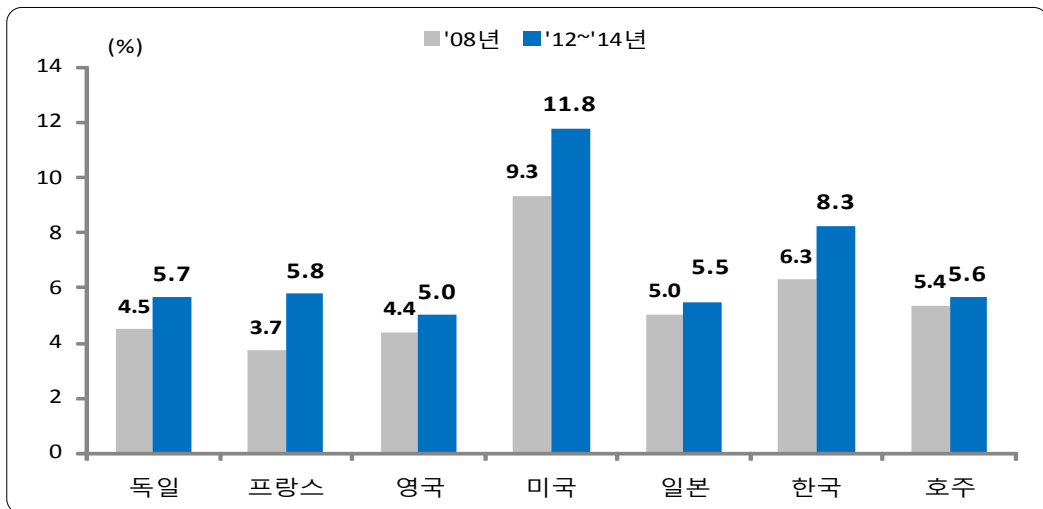
| | | '07.12월 | '08.12월 | '10.12월 | '13.12월 | '14.9월 | 한국('14.9월) |
|-------------|----|---------|---------|---------|---------|--------|------------|
| 보통주 비율 | 4대 | - | - | - | 8.2 | 8.7 | 11.4 |
| | 전체 | - | - | - | 8.6 | 9.0 | |
| Tier1 비율 | 4대 | 6.7 | 8.1 | 9.5 | 10.1 | 10.6 | 11.7 |
| | 전체 | 7.2 | 8.2 | 9.7 | 10.4 | 10.7 | |
| 총자본 비율 | 4대 | 9.7 | 11.3 | 11.3 | 11.5 | 12.1 | 14.3 |
| | 전체 | 10.2 | 11.4 | 11.6 | 11.8 | 12.3 | |

주 : '13.12월과 '14.9월은 바젤 III 기준, 전체에는 외은지점 제외, 한국 항목의 수치는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을 나타냄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금융감독원

-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도 '08년말 5.4%에서 '14.6월말 5.6%로 상승
 - 다만 '14년 선진국 평균(7.7%)보다는 낮은 수준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 추이



주 : 1) 회계상 자본/총자산으로 계산

2) '12~'14년의 경우 호주와 독일은 '14.6월, 일본과 미국은 '14.3월, 한국과 프랑스는 '13.12월, 영국은 '12.6월 기준

자료 : IMF

▶ 수익성 : 효율성 향상 등으로 수익성 회복세

- '10년부터 ROA와 ROE 모두 전반적으로 회복세
 - 금융위기 이후 부실자산 증가 등으로 악화됐던 ROA와 ROE는 안정적 수익 시현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전체 은행 대비 4대 은행의 ROA와 ROE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4대 은행이 수익성 개선 주도
 - ROE 추이('07→'09→'14.6월, %) : 기타 국내은행 15.3 → 7.3 → 8.1
 외은 자회사 9.6 → 9.7 → 8.3

금융위기 전후 수익성 지표(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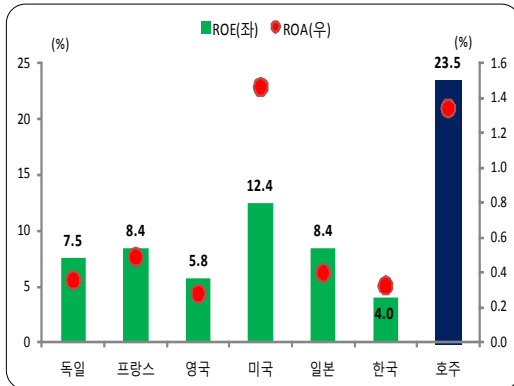
(단위 : %)

| | | '07 | '08 | '09 | '12 | '13 | '14.9 |
|-----|----|-------------|-------------|-------------|-------------|-------------|-------------|
| ROA | 호주 | 1.0 | 0.6 | 0.6 | 0.7 | 0.8 | 0.9 |
| | 4대 | 1.0 | 0.9 | 0.6 | 0.8 | 0.9 | 0.9 |
| | 한국 | 1.1 | 0.5 | 0.4 | 0.5 | 0.2 | 0.4 |
| ROE | 호주 | 17.9 | 13.2 | 10.6 | 12.4 | 14.4 | 14.7 |
| | 4대 | 18.8 | 16.4 | 11.0 | 13.4 | 15.3 | 15.6 |
| | 한국 | 14.6 | 7.2 | 5.8 | 6.2 | 2.7 | 5.2 |

주 : 1) 전체는 국내은행, 외은 자회사, 외은 지점 포함
 2) 4대 은행의 경우 '14년 ROA와 ROE는 6월 기준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금융감독원

- 국가별로 보면 호주 은행의 수익성은 타국가 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유지
 - 호주 은행 대비 미국 은행의 ROE는 53%, 한국 은행은 17% 수준
- 비용효율성(영업비용/총이익) 개선도 수익성 회복에 기여
 - 비용효율성*(은행산업 전체)이 금융위기 이전 50%대에서 '08.9월 65.7%까지 상승하였으나 '14.6월 49.8%로 하락
 - * 4대 은행 추이(%) : 48.3('07.12) → 56.2('08.9) → 46.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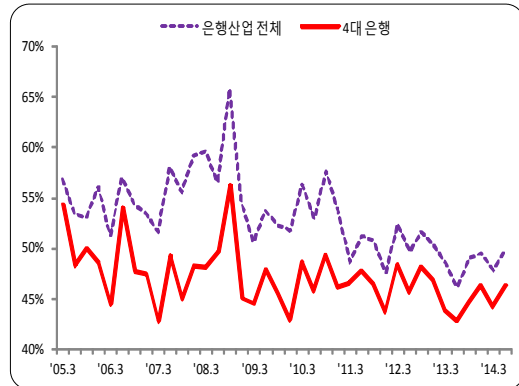
주요국별 수익성(세전기준) 비교



주 : 호주와 독일은 '14.6월, 일본과 미국은 '14.3월, 한국과 프랑스는 '13.12월, 영국은 '12.6월 기준

자료 : IMF

비용효율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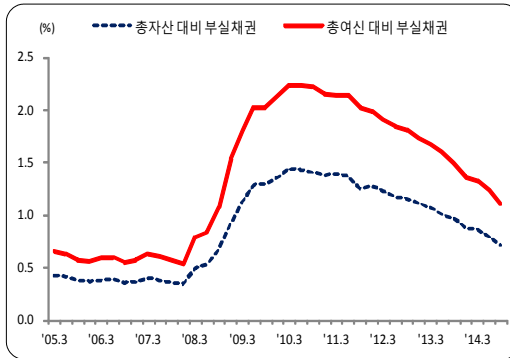


자료 : AP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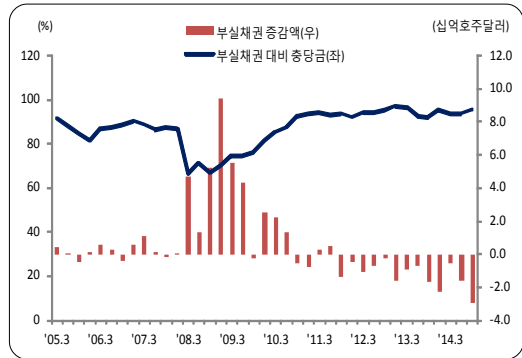
▶ 자산건전성 : 부실채권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비교적 양호한 상태 유지

-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위기로 '10년 2Q까지 급증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 지속
 - 부실채권비율*(%) : 0.54('07.12) → 1.53('08.12) → 2.13('09.12) → 2.24('10.6, 고점) → 1.99('11.12) → 1.37('13.12) → 1.11('14.9)
 - * '14.9월 현재 : 4대 은행 1.0%, 기타 국내은행 2.0%, 외은 자회사 1.6%
 - 분기 기준 부실채권 순증감액도 '10.3Q부터 축소 내지 감소로 전환(부실자산 잔액 축소)
 - 부실채권 대비 총당금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고 있어 충격흡수능력도 개선되는 상황
- 또한, 자산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
 - 호주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은행에 비해 낮은 상태

금융위기 전후 자산건전성



부실채권 증감액 추이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주요 국가별 부실채권비율 비교

(단위 : %)

| | | '08년 | '09년 | '10년 | '12년 | '13년 | '14년 |
|-----|----|------|------|------|------|------|------|
| 호주 | 전체 | 1.53 | 2.13 | 2.15 | 1.73 | 1.37 | 1.11 |
| | 4대 | 1.22 | 1.86 | 1.99 | 1.58 | 1.31 | 1.00 |
| 독일 | | 2.85 | 3.31 | 3.20 | 2.86 | 2.69 | - |
| 프랑스 | | 2.82 | 4.02 | 3.76 | 4.29 | 4.50 | - |
| 영국 | | 1.56 | 3.51 | 3.95 | 3.66 | - | - |
| 미국 | | 2.97 | 5.00 | 4.40 | 3.30 | 2.45 | 2.29 |
| 일본 | | 2.40 | 2.40 | 2.50 | 2.40 | 2.30 | 1.90 |
| 한국 | | 1.14 | 1.24 | 1.90 | 1.33 | 1.79 | 1.72 |

주 : 1) '12년의 경우 영국은 6월 기준(나머지는 12월), '14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3월, 한국과 호주는 9월 기준

2) 한국은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

자료 : IMF, APRA, 금융감독원

- 다만, 가계부문에 대한 익스포져는 잠재적 위험요인
 - 금융위기 이후 호주 은행들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위기 이전 대비 크게 축소('09.9~'11.5월중 매월 음의 증가율 기록)
 - 반면 주택대출 증가율*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

* 월평균 증가율 변화('03.1~'08.9월 → '09.1~'1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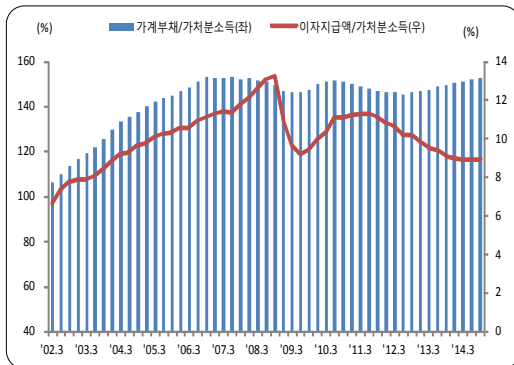
- 주택대출 14.2% → 9.9%, 기업대출 17.4% → 1.5%

- 이에 따라 총대출 대비 주택대출 비중은 '07년말 42.3%에서 '14.11월말 53.1%로 10.8%p 상승
 - 기업대출 비중은 신용위험 등으로 37.7%에서 28.7%로 하락
- 이런 가운데, 호주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06.9월 153.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14.9월 현재 152.8%
 -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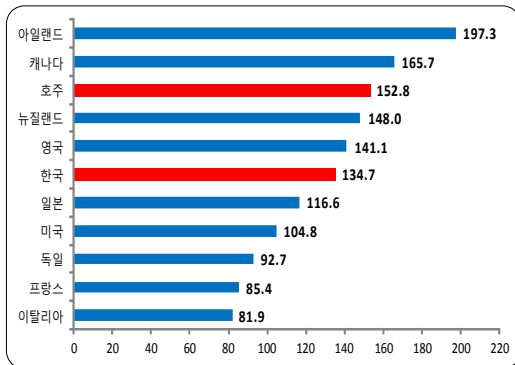
- LTV는 평균 50% 수준
- '14.9월 기준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은 1.9배, 비금융자산은 2.6배
- '10년 기준 소득계층을 5개 그룹으로 분류시 상위 두 개 그룹이 가계부채의 75% 보유

호주 가계부채비율 추이



자료 : RBA

국가별 가계부채/가처분소득비율 비교



- 주 : 1) 이탈리아, 독일, 미국, 영국의 경우 비영리 법인의 부채도 포함
- 2) 한국 '13.12월, 호주 '14.9월, 나머지는 '13.9월 기준

자료 : RBA, IMF, 한국은행

▶ **유동성 : 부채조달구조 개선으로 유동성 향상**

- 금융위기로 유동성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금 및 장기조달비중은 상승하고 단기조달비중은 하락
 - 전체 은행산업의 경우 예금비중(총부채 대비)이 '07년 39.6%에서 '13년 52.3%로 상승(4대 은행 : 43.2% → 54.2%)
 - 반면 단기조달액은 연평균 1.7% 감소하면서 비중도 22.7%에서 14.3%로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호주 정부의 예금 및 도매조달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도 조달구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호주 은행들의 부채조달구조 추이(연결기준)

(단위 : %)

| | | '07.12 | '10.12 | '12.12 | '13.12 | CAGR ('07~'13) |
|----|------|--------|--------|--------|-------------|----------------|
| 전체 | 예금 | 39.6 | 47.6 | 51.7 | 52.3 | 11.3 |
| | 단기조달 | 22.7 | 16.2 | 15.1 | 14.3 | △1.7 |
| | 장기조달 | 11.7 | 15.4 | 13.7 | 14.0 | 9.4 |
| 4대 | 예금 | 43.2 | 50.6 | 53.7 | 54.2 | 13.5 |
| | 단기조달 | 17.8 | 15.4 | 14.4 | 13.6 | 4.5 |
| | 장기조달 | 14.8 | 16.0 | 14.5 | 15.2 | 9.8 |

주 : 총부채 대비, 예금에는 CD 제외, 단기조달에는 CD 포함, CAGR은 잔액 연평균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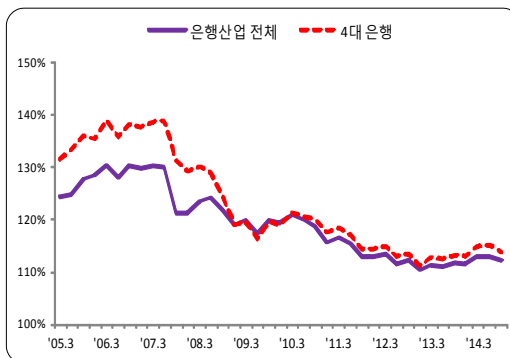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 호주 정부의 예금 및 도매조달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

- '08.10.12일 호주 정부는 예금 및 도매조달에 대한 지급보증 조치 발표 ('08.11.28일부터 시행)
 - (예금 지급보증, '11.10.12일 종료) 호주 국내은행 및 외은 자회사에 예치된 예금중 1인당 1백만호주달러까지 지급보증
 - 기존 또는 신규 거액예금(1백만호주달러 초과)에 대해서는 은행이 일정 수수료 지불시 지급보증
 - (도매조달 지급보증, '10.3월말 종료) 거액예금처럼 기존 또는 신규 도매조달에 대해 은행이 일정 수수료 지불할 경우 지급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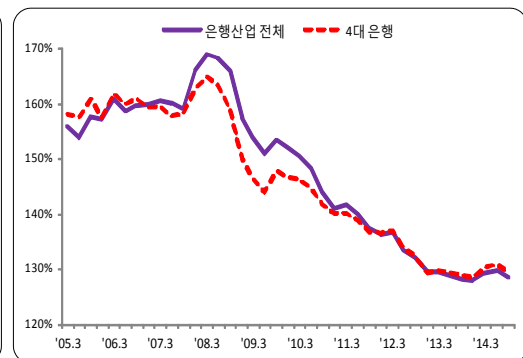
- 부채조달구조 개선에 힘입어 예대율(CD 제외) 하락 등 유동성 향상
 - 전체 은행의 예대율*은 '08.3월 168.8%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위기 이후 예금이 확대되면서 '14.9월 현재 128.4%로 하락
 - 다만, 예대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절대수준에서는 여전히 100%를 상회하고 있어 도매조달위험(Wholesale Funding Risk) 상존
 - * 4대 은행 예대율(%) : 162.5('07.12) → 150.0('08.12) → 146.7('09.12) → 140.0('10.12) → 129.3('12.12) → 129.4('14.9)

예대율 추이(CD 포함)



자료 : APRA

예대율 추이(CD 제외)



자료 : APRA

▶ 자금운용구조 : 소매금융 중심의 자금운용

- 호주 국내은행들은 대출 중심의 자금운용구조 보유
 - '13년말 현재 총자산 대비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대출이 68.1%, 유가증권 투자가 16.4%로 대출이 지배적
 - 유가증권투자의 경우 위기 이전에는 단기매매증권비중이 투자증권비중에 비해 세 배 정도 많았으나 위기 이후 역전
 - 대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 부각으로 기업대출비중이 하락하고 가계대출비중이 상승
- '07~'13년중 가계대출의 CAGR은 9.8%(주택대출은 11.1%)로 기업대출(6.0%) 대비 약 4%p 상회

호주 국내은행들의 자금운용구조

(단위 : %)

| | '07.12 | '10.12 | '12.12 | '13.12 | CAGR ('07~'13) |
|----------|---------------|---------------|---------------|---------------|----------------|
| 현금 등 | 3.2 | 2.4 | 2.2 | 2.8 | 5.9 |
| 유가증권 | 12.2 | 15.1 | 16.1 | 16.4 | 13.5 |
| (단기매매증권) | (9.3) | (6.8) | (7.1) | (7.2) | (3.5) |
| (투자증권) | (3.0) | (8.3) | (9.0) | (9.2) | (30.6) |
| 대출 | 67.1 | 69.1 | 69.4 | 68.1 | 8.4 |
| (기업대출) | (19.0) | (16.9) | (17.6) | (16.8) | (6.0) |
| (가계대출) | (43.2) | (47.8) | (48.0) | (47.5) | (9.8) |
| (주택) | (38.4) | (44.8) | (45.6) | (45.2) | (11.1) |
| (카드) | (1.8) | (1.6) | (1.5) | (1.4) | (3.3) |

주 : Domestic Book 기준, 총자산 대비 비중, CAGR은 잔액 연평균 증감률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 위기 이후 4대 은행은 대출규모가 증가하였으나 기타 국내은행은 축소
 - 이에 따라 4대 은행이 기타 국내은행에 비해 대출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4대 및 기타 국내은행의 자금운용구조

(단위 : %)

| | | '07.12 | '10.12 | '12.12 | '13.12 | CAGR (07~13) |
|----------|------|-------------|-------------|-------------|-------------|-----------------|
| 4대 | 유가증권 | 10.9 | 14.8 | 15.6 | 16.1 | 18.0 |
| | 대출 | 68.8 | 69.8 | 69.8 | 68.2 | 10.3 |
| | (가계) | (63.3) | (69.6) | (68.4) | (68.8) | (11.9) |
| 기타 국내 | 유가증권 | 17.2 | 17.1 | 20.0 | 18.4 | △3.2 |
| | 대출 | 60.8 | 64.8 | 65.5 | 67.7 | △2.5 |
| | (가계) | (68.5) | (66.0) | (75.8) | (78.1) | (△0.4) |

주 : Domestic Book 기준, 총자산 대비, 가계는 대출 대비, CAGR은 잔액 연평균 증감률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 수익구조 : 총이익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호주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균형 잡힌 구조였으나 점차 이자이익 중심으로 변화
 - '07년 기준 호주 국내은행들의 경우 이자이익 대 비이자이익 비중이 4.8 : 5.2였으나 '13년에는 6.7 : 3.3으로 변화
 -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수료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주택대출 이자수익이 총이익의 80.9%로 이자이익의 주된 원천
- 4대 은행과 기타 국내은행간 수익구조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정반대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된 점에서는 유사
 - (금융위기 이전) '07년 기준 4대 은행은 이자이익 비중이 60%, 기타 국내 은행은 비이자이익비중이 78%로 정반대의 수익구조 보유
 - (금융위기 이후) 4대 은행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4대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13년중 69%로 상승
 - 반면 기타 국내은행은 이자이익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수수료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자이익 비중 상승

호주 국내은행들의 수익구조(1~12월 기준)

(단위 : %)

| | '07년 | '10년 | '12년 | '13년 | CAGR ('07~'13년) |
|--------|-------------|-------------|-------------|-------------|---------------------|
| 이자수익 | 171.5 | 169.6 | 183.8 | 158.8 | 1.6 |
| (주택대출) | (75.1) | (82.9) | (93.1) | (80.9) | (4.2) |
| 이자비용 | 123.3 | 110.9 | 116.1 | 91.8 | △2.0 |
| 이자이익 | 48.2 | 58.7 | 67.8 | 67.0 | 8.8 |
| 비이자이익 | 51.8 | 41.3 | 32.2 | 33.0 | △4.5 |
| (수수료) | (27.1) | (19.9) | (21.1) | (19.6) | (△2.5) |
| (기타) | (24.7) | (21.4) | (11.1) | (13.4) | (△7.0) |

주 :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대비 비중, CAGR은 수익·이익·비용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4대 및 기타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비교(1~12월 기준)

(단위 : %)

| | | '07년 | '10년 | '12년 | '13년 | CAGR ('07~'13년) |
|----------|-------|-------------|-------------|-------------|-------------|---------------------|
| 4대 | 이자이익 | 59.9 | 68.8 | 70.0 | 69.0 | 9.8 |
| | 비이자이익 | 40.1 | 31.2 | 30.0 | 31.0 | 2.8 |
| | (수수료) | (24.9) | (21.8) | (20.6) | (19.8) | (3.2) |
| | (기타) | (15.1) | (9.4) | (9.4) | (11.2) | (2.0) |
| 기타 국내 | 이자이익 | 21.8 | 21.8 | 50.1 | 51.0 | 0.6 |
| | 비이자이익 | 78.2 | 78.2 | 49.9 | 49.0 | △19.2 |
| | (수수료) | (32.1) | (12.7) | (25.1) | (18.4) | (△20.4) |
| | (기타) | (46.1) | (65.6) | (24.8) | (30.6) | (△18.5) |

주 :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 대비 비중, CAGR은 이익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참고>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및 수익구조

- (자금조달) 예금이 65.6%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자금운용) 대출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단기운용비중이 크게 상승
- (수익구조) 이자이익 비중이 약 90%대로 절대적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추이

(단위 : %)

| | | '07.12월 | '10.12월 | '12.12월 | '13.12월 | CAGR ('07~'13년) |
|------|-------|-------------|-------------|-------------|-------------|--------------------|
| 조달구조 | 예금 | 48.5 | 60.8 | 65.2 | 65.6 | 9.8 |
| | 단기조달 | 11.4 | 3.8 | 2.1 | 2.3 | △20.2 |
| | 장기조달 | 20.2 | 17.5 | 15.6 | 16.4 | 0.9 |
| 운용구조 | 단기운용 | 3.9 | 5.2 | 5.4 | 6.7 | 14.7 |
| | 대출 | 62.5 | 65.4 | 65.9 | 67.7 | 6.1 |
| | (기업) | (35.6) | (38.3) | (39.0) | (40.3) | (6.9) |
| | (가계) | (25.4) | (25.6) | (25.4) | (25.7) | (4.9) |
| | 유가증권 | 18.6 | 16.6 | 16.2 | 15.2 | △1.2 |
| 수익구조 | 이자이익 | 74.3 | 82.7 | 90.7 | 89.5 | 1.9 |
| | 비이자이익 | 25.7 | 17.3 | 9.3 | 10.5 | △14.9 |
| | (수수료) | 11.2 | 9.0 | 11.3 | 11.5 | (△0.7) |

주 : 1) 조달구조는 총부채, 운용구조는 총자산, 수익구조는 총이익 대비

2) 단기조달은 CD와 RP매도, 장기조달은 원화 및 외화은행채, 단기운용은 원화 및 외화예치금, 콜론과 RP매수입

3) CAGR은 잔액 및 이익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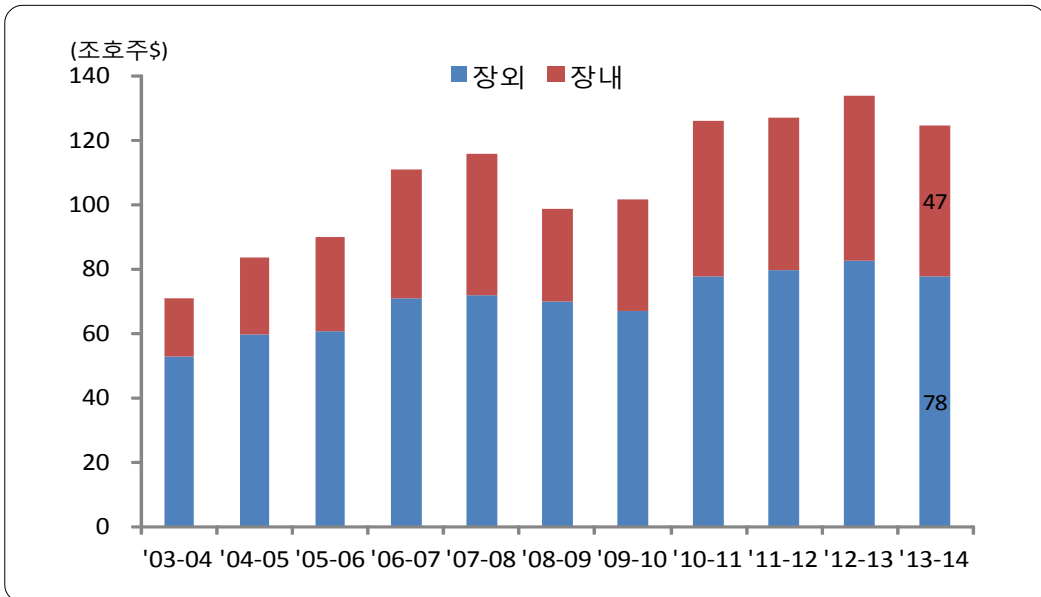
3. 자본시장 현황

가. 개관

▶ 금융위기 이후 장내거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호주 자본시장 거래규모 중 장외거래 비중은 여전히 60% 상회

- 장외거래는 외환, 파생상품(선물 제외), 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거래규모는 78조 호주달러로 전체의 63% 차지
 - 거래비중은 외환 55%, 파생상품 30%, 채권 3% 등
- 주식, 선물 등으로 구성되는 장내거래는 47조 호주달러로 전체 규모의 37% 차지
 - 선물거래가 95%로 대부분 점유

호주 자본시장 거래규모 추이



주 : 기간은 당해년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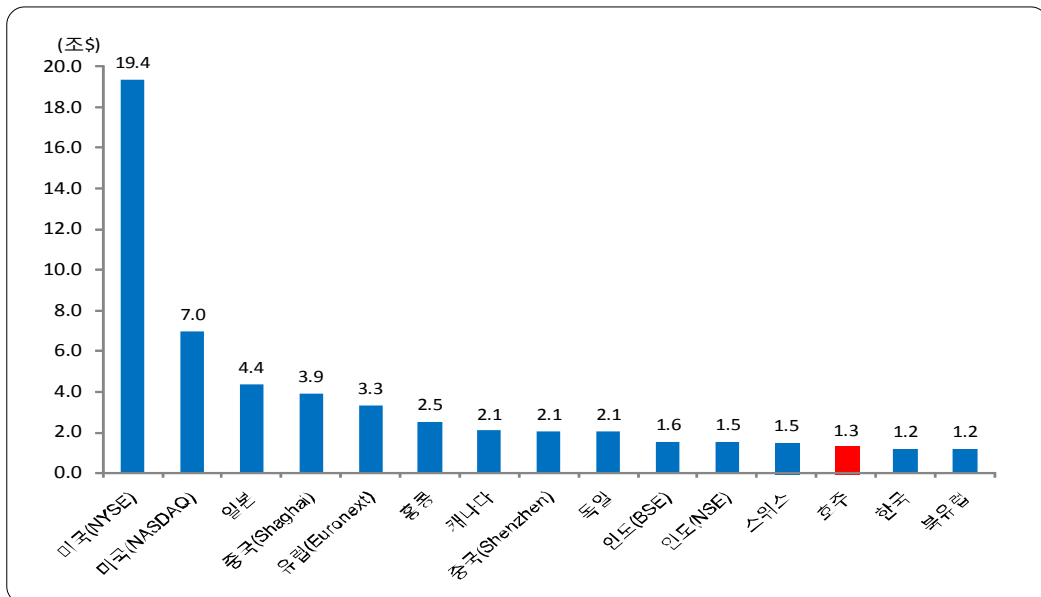
자료 : Australian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나. 시장별 현황

▶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3위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 시현 중

- '14년말 기준 시가총액은 1.3조달러로 글로벌 거래소* 시가총액 대비 2.0%를 차지하여 거래소 중 13위를 기록
 - 금융위기로 '08년말 0.7조달러를 기록한 이후 1.2~1.5조달러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위기 이전인 '07년 시가총액 수준 회복
 - 아시아지역 거래소 기준 비중은 6.1%로 7위 기록(한국 5.8%, 8위)
- *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 회원거래소 기준, 런던증권거래소(LSE) 제외

글로벌거래소 시가총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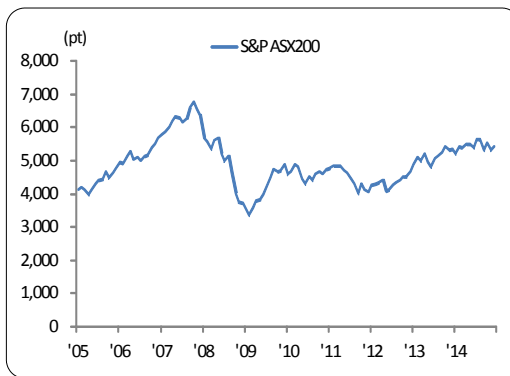


주 : 북유럽은 NASDAQ QMX Nordic Exchange 기준

자료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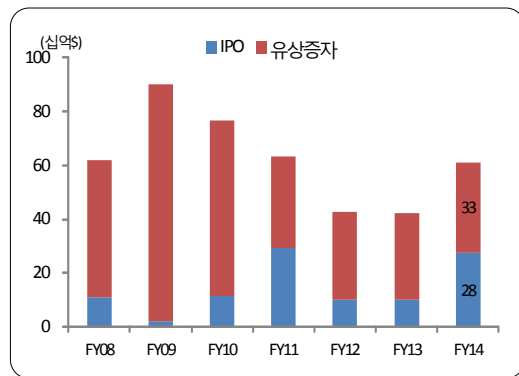
- 호주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14년말 기준 5,411pt 기록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IPO·유상증자)은 FY14 기준 610억달러이며 시가총액 대비 4.7%를 차지(한국 : 52억달러, 0.4%)
 - * S&P ASX200 Index 기준

S&P ASX200 Index



주 : Bloomberg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주 : ASX

▶ (채권시장) 금융위기 이후 국채가 시장을 지배

- '14.12말 현재 국내채권시장(역외발행 제외) 규모(잔액)는 1.06조호주달러, 국채 비중이 54.1%로 시장을 지배
 -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민간부문(기업+은행 및 기타금융기관)발행 채권이 채권시장을 지배하였으나 위기 이후 국가재정 악화로 국채비중 상승 지속
 - '07~'14년말 발행잔액 CAGR : 민간부문발행 채권 5.0%, 국채 24.3%
 - * 국채비중(채권잔액 대비, %) : 26.5('07말) → 27.9('08말) → 41.5('10말) → 49.4('12말) → 54.1('14말)
 - 민간부문발행 채권은 금융채(은행채 포함) 중심으로 증가
 - 회사채발행(역내)은 증가세가 약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역외조달이 크게 확대

'07~'14년말 채권종류별 발행잔액, 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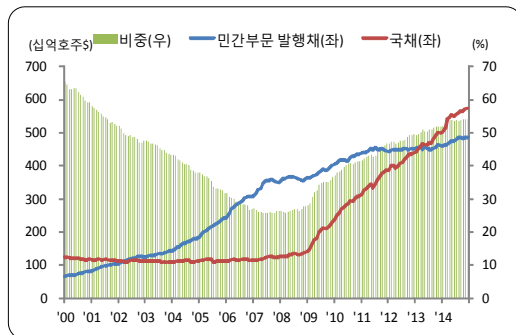
(단위 : 십억호주달러, %)

| 시기/구분 | 역내 | | | | 역외 | |
|-------|-------|------|-------|-------|-------|-------|
| | 금융채 | 회사채 | 민간부문 | 국채 | 금융채 | 회사채 |
| '07년말 | 81.6 | 46.1 | 346.0 | 124.9 | 236.4 | 77.2 |
| '14년말 | 158.9 | 50.2 | 487.2 | 573.7 | 366.5 | 153.2 |
| CAGR | 10.0 | 1.2 | 5.0 | 24.3 | 6.5 | 10.3 |

주 : 민간부문에는 금융채 및 회사채 이외 ABS, 비거주자발행채권 포함

자료 : R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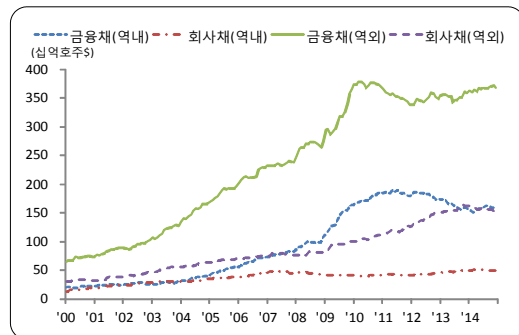
국내채권시장 구성



주 : 비중은 전체채권대비 국채 비중

자료 : RBA

회사채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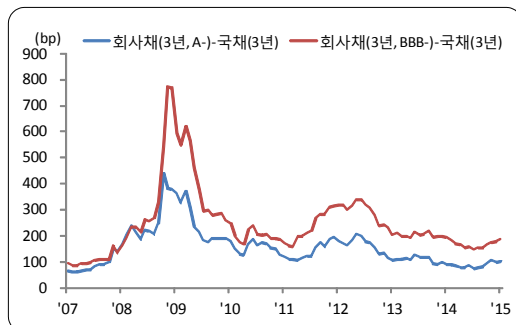


자료 : RBA

● 채권투자수요도 견조한 상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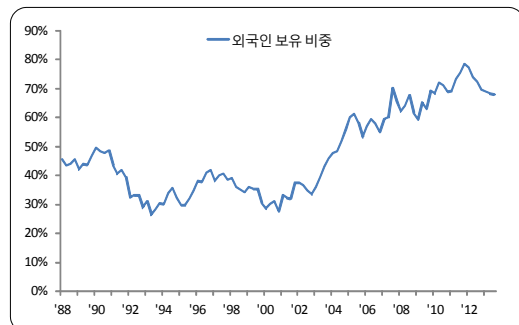
–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증가세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 RBA

외국인의 국채보유 현황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참고> 주요 아시아국가간 채권시장규모 비교

- BIS 통계기준 호주 채권시장은 아시아지역에서 3번째 규모
 - 일본 13조달러, 중국 4.3조달러, 호주 2.0조달러, 한국 1.7조달러
- 다른 나라에 비해 국제채 발행이 더 많은 것이 특징

국가별 채권시장 비교

(단위 : 십억달러)

| | '08.9월말 | | | '14.9월말 | | |
|----|---------|-----|-----------------|-------------------|-----|-----------------|
| | DDS | IDS | 계 ¹⁾ | DDS ²⁾ | IDS | 계 ¹⁾ |
| 일본 | 10,348 | 172 | 10,520 | 12,748 | 234 | 12,982 |
| 중국 | 2,122 | 22 | 2,144 | 4,240 | 58 | 4,298 |
| 호주 | 789 | 471 | 1,260 | 1,420 | 617 | 2,037 |
| 한국 | 758 | 108 | 866 | 1,518 | 174 | 1,692 |
| 인도 | 39 | 28 | 68 | 683 | 29 | 711 |

주 : 1) 일본과 호주 외에는 총채권발행규모(TDS) 미제공

2) '14.9월말의 DDS는 '14.6월 기준

자료 : BIS

☞ BIS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채권발행 통계를 제시

- International Debt Securities(국제채권) : 비거주자가 전세계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 Domestic Debt Securities(국내채권) : 거주자가 자국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 Total Debt Securities(총채권) : 거주자가 모든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 IDS와 DDS간 중복 가능성 문제로 중앙은행이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미국, 일본, 호주, 유로존 등 주로 선진국)에 한해서 TDS 통계 제공



호주 금융시스템 주요 특징

1. Four Pillars Policy(4대 기둥 정책)

▶ 대형 금융회사들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체제 유지가 목적

- 호주 정부가 '90년 Six Pillars Policy를 도입한 것이 시초
- Six Pillars Policy는 호주 4대 은행*과 2대 보험사**간의 상호 합병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 당시 대형 은행그룹 ANZ와 대형 보험사 National Mutual간 합병을 막기 위해 도입
 - * Commonwealth Bank, Westpac, NAB, ANZ
 - ** AMP, National Mutual

▶ '97년 4대 은행간 합병을 금지하는 Four Pillars Policy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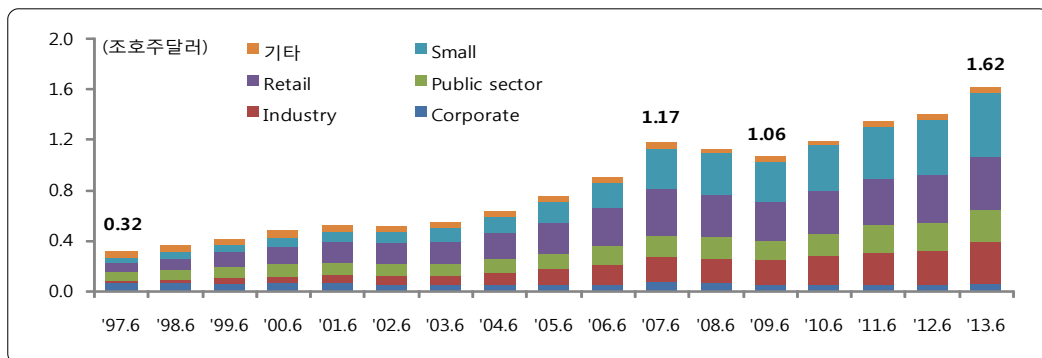
- '97년 Stan Wallis*는 호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Six Pillars Policy 폐지를 주장
 - * '96~'97년중 호주금융시스템조사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into the Australian Financial System) 위원장 역임
- 같은해 재무장관 Peter Costello가 2대 보험사를 합병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Four Pillars Policy로 전환
 - '95년 프랑스 AXA Group이 2위 보험사인 National Mutual 주식을 취득하면서 보험사 규제 실효성이 낮아진 것도 배경
 - 동 정책으로 인해 4대 은행이 국내에서 과다 경쟁하기보다 해외진출을 꾀했다는 평가도 존재

2. Superannuation(퇴직연금제도)

▶ Superannuation은 정부 주도로 '92년 도입된 강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9.5%('14.7.1일 기준 기여율)에 해당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를 Superannuation Fund에 불입
 - 동 기여율은 '92년 3.0%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2.7월에는 12.0%까지 인상될 예정
 - 근로자도 Superannuation Fund에 자발적으로 불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호주 연금구조(3층 구조)
 - 1층 : 세금으로 지원되는 노령연금
 - 2층 : 퇴직연금(강제 불입)
 - 3층 : 개인연금(자발적 불입)
- '13.6월말 총 Superannuation 자산규모는 1.62조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후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산규모는 '09.6월말 1.06조호주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성장세 지속
 - '12.7~'13.6월중 총 불입액은 1,153억호주달러*로 2.0% 감소
 - * 사용자 775억호주달러, 근로자 365억호주달러, 배우자·정부 13억호주달러

Superannuation 종류별 자산추이



주 : 기타는 Pooled Superannuation Trusts, Balance of Life Office Statutory Funds 포함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Superannuation의 종류

| 종류 | 내용 |
|-------------------------|---|
| Retail (소매형) | -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 대상 - 자산규모('13.6월말) : 4,228억호주달러(비중 26.1%) |
| Industry (산업형) | - 특정 산업 종사자 대상, 수수료가 소매형 대비 저렴 - 자산규모('13.6월말) : 3,247억호주달러(비중 20.1%) |
| Corporate (기업형) | - 개별기업의 종업원 대상 - 자산규모('13.6월말) : 613억호주달러(비중 3.8%) |
| Public Sector (공공부문) | - 공무원 대상 - 자산규모('13.6월말) : 2,569억호주달러(비중 15.9%) |
| Small (소형기금) | - 가입자 4명 이하의 소규모 기금 총칭 - '자기관리형기금*'으로 지칭 - 자산규모('13.6월말) : 5,080억호주달러(비중 31.4%) * Self managed super funds : 가입자 본인이 수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스스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 |

주 : Superannuation의 각 부문별 합계는 총계와 일치하지 않음(그외 신탁계정과 보험사 펀드계정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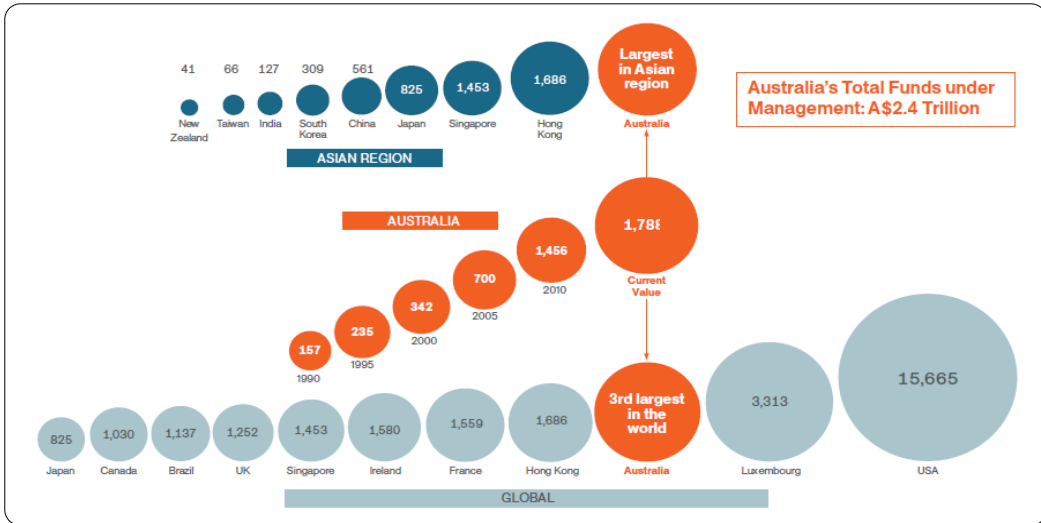
자료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

▶ Superannuation 도입은 호주 자산운용업 발전에 기여

- '14.6월말 호주의 운용펀드규모(Funds Under Management)는 1.8조US달러 (2.4조호주달러)로 글로벌 3위, 아시아 1위
 - '97.6월~'14.6월중 운용펀드규모는 연평균 10.7% 증가
 - Superannuation Funds, 보험회사, 폭넓은 소매투자가* 기반 등이 자산운용업의 주요 성장동력
 - 운용펀드의 주요 구성은 Superannuation Funds가 65.0%, 보험사 계약중 Superannuation 부분이 10.3%를 차지('14.6월말)
 - * 소매투자가는 주로 Public Unit Trusts, Cash Management Funds를 통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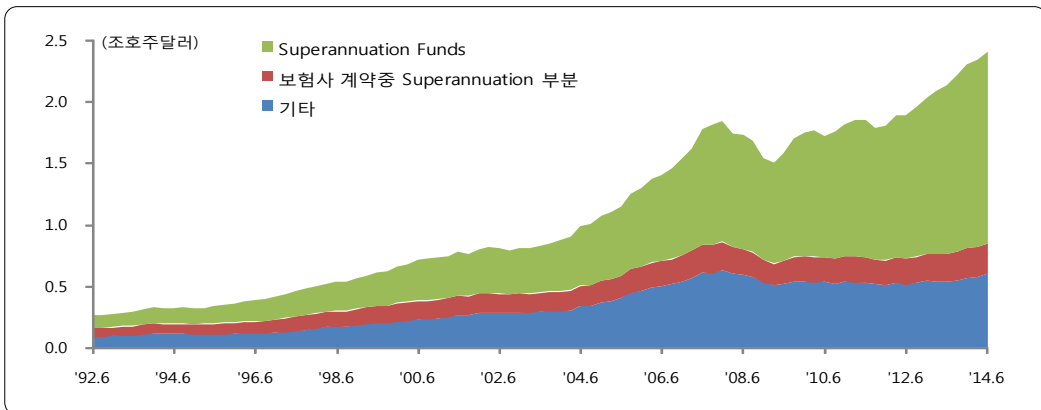
'14.6월말 기준 호주 금융기관의 운용펀드규모

(단위 : 십억US달러)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Australian Trade Commission), "Benchmark Report 2015 : Why Australia," 2014.7.18 재인용

운용펀드규모 추이



주 : 기타는 Life Insurance Offices, Public Unit Trusts, Cash Management Trusts, Common Funds, Friendly Societies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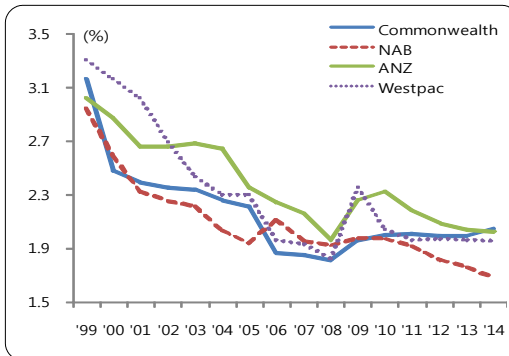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3. 4대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및 해외진출

▶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순이자마진(NIM) 하락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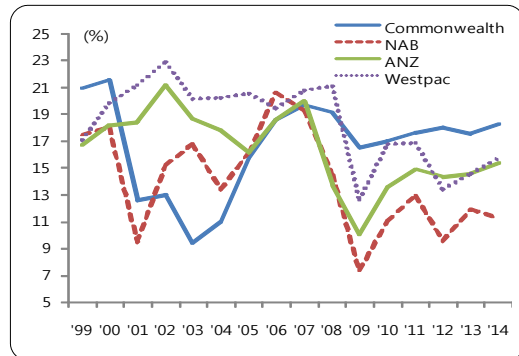
-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로 4대 은행의 NIM은 하락세 지속
 - 4대 은행의 평균 NIM(%) : 3.11('99년) → 1.93('14년)
- 반면 '14년 4대 은행의 평균 ROE는 15.14%로 '99년 18.01%에 비해 하락폭이 크지 않음
 - 이는 4대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국내은행과 같이 높지 않고 수익구조가 수수료이익, 보험이익 등으로 다변화된데 기인
 - 총이익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변동성이 있으나 28~45% 수준('99~'14년 기준)

4대 은행의 NIM 추이



주 : Bankscope

4대 은행의 ROE 추이



주 : Bankscope

4대 은행의 수익합계 추이

(단위 : 천달러)

| | '99년 | '04년 | '09년 | '14년 |
|-------|---------------|---------------|---------------|---------------|
| 이자이익 | 11,049(60.4) | 15,925(56.2) | 37,967(71.2) | 50,222(70.3) |
| 비이자이익 | 7,253(39.6) | 12,426(43.8) | 15,365(28.8) | 21,268(29.7) |
| 수수료이익 | n.a | 9,402(33.2) | 10,219(19.2) | 12,121(17.0) |
| 보험이익 | n.a | n.a | 2,339(4.4) | 3,596(5.0) |
| 총이익 | 18,302(100.0) | 28,352(100.0) | 53,332(100.0) | 71,491(100.0) |

주 : ()는 총이익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 Bankscope

▶ 국내시장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수익원 다변화와 함께 해외진출 확대 추진

- 호주 4대 은행중 ANZ와 NAB의 국제화 수준이 높은 편
- ANZ 및 NAB는 해외(호주·뉴질랜드 외) 수익 및 자산비중이 높은 편이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국 등에 진출하여 영업중
 - ANZ의 경우 M&A*를 통한 해외사업 확대로 '14년 기준 기타지역(APEA** 사업부) 수익 비중을 18.2%까지 확대
 - 또한, 성장성이 높은 아·태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룹 핵심전략 중 하나로 채택
 - * '98년 인도네시아 PT Panin Bank 인수, '09년 RBS 아시아사업부문 인수 등
 - ** The Asia Pacific, Europe and America
 - NAB는 영국 Clydesdale Bank('87)와 Yorkshire Bank('90), 미국 Great Western Bank('08) 등 영·미지역 은행의 지속적 인수로 해외수익 및 자산비중이 16%대에 달함
 - 다만, 최근 Great Western Bank(美지역 자회사)의 IPO('14) 및 지분 매각 계획과 CEO 발언* 등에서 보듯 국내영업도 강화하는 모습
 - * 최근 NAB의 CEO인 Andrew Thorburn는 “호주 및 뉴질랜드 사업 역량 강화에 은행 전략의 초점을 둘 계획”임을 밝힘
- 반면, Westpac과 Commonwealth는 상대적으로 지역내(호주 및 뉴질랜드) 영업에 중점을 두어 국제화 수준이 낮은 편
 - Westpac는 해외수익 비중이 3%를 하회하여 가장 저조
 - Commonwealth는 인도네시아 PT Bank Indonesia('94) 인수, 아시아법인인 IFS Asia* 운영 등으로 아시아지역 관심 지속
 - *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Asia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 소매 및 중소기업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험업 영위 중

호주 4대 은행 지역별 수익 및 자산 비중

(단위 : %)

| 지역/은행 | National Australia Bank (NAB) | | Westpac Banking Corp. (Westpac) |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BA) |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ANZ) | | |
|-------|-------------------------------|-------|---------------------------------|-------|--------------------------------------|-------|--|-------|-------|
| | '13년 | '14년 | '13년 | '14년 | '13년 | '14년 | '13년 | '14년 | |
| 수익 | 호주 | 76.3 | 73.2 | 88.1 | 85.1 | 87.3 | 84.8 | 67.5 | 64.5 |
| | 뉴질랜드 | 8.5 | 10.0 | 10.0 | 12.3 | 8.7 | 10.5 | 15.2 | 17.3 |
| | 기타 | 15.2 | 16.8 | 1.9 | 2.6 | 4.0 | 4.7 | 17.3 | 18.2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산 | 호주 | 78.1 | 78.5 | 91.2 | 91.2 | 92.2 | 91.0 | 74.1 | 72.8 |
| | 뉴질랜드 | 5.6 | 5.1 | 5.7 | 5.8 | 6.6 | 7.3 | 17.2 | 17.2 |
| | 기타 | 16.3 | 16.4 | 3.1 | 3.0 | 1.2 | 1.7 | 8.7 | 10.0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각사 Annual Report

4. 4대 은행의 소유구조 : Common Ownership

▶ 4대 은행은 동일한 Top 4 주주가 평균 44.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Common Ownership 형태 보유

- 1~4대 주주는 모두 HSBC, JP Morgan, National Australia Bank, Citi 등 영국, 미국, 호주 금융회사들의 Nominees*임

* Nominees는 여러가지 이유로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주체(주로 외국인 투자자, Superannuation Funds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주식을 소유 및 관리하는 일종의 수탁기구

- 특히 1대 주주인 HSBC Custody Nominees는 4대 은행에 대한 보유 지분이 15%*를 상회

* Treasurer의 승인 없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분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호주 4대 은행의 주요주주 현황

(단위 : %)

| 주요주주 | CBA | NAB | ANZ | Westpac |
|---|--------|--------|--------|---------|
| Top 1~4대 주주 | 40.03 | 43.63 | 49.25 | 44.29 |
| HSBC Custody Nominees (Australia) Limited | 15.58 | 17.38 | 19.38 | 17.73 |
| JP Morgan Nominees Australia Limited | 11.82 | 12.62 | 14.78 | 12.07 |
| National Nominees Limited | 8.16 | 9.76 | 10.47 | 9.82 |
| Citicorp Nominees Pty Limited | 4.47 | 3.87 | 4.62 | 4.67 |
| Top 5~20대 주주 | 7.49 | 9.03 | 8.42 | 7.63 |
| 기타 | 52.48 | 47.34 | 42.33 | 48.08 |
| 총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주 : CBA는 '14.8.7일, NAB는 '14.10.31일, ANZ는 '14.10.10일, Westpac은 '14.10.3일 기준
 자료 : 각사 Annual Report

- Common Ownership 하에서는 주주들의 압력이 가격경쟁보다는 독점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¹⁾

5.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 세 개 기관(RBA, APRA, ASIC) 중심의 기능별 규율 및 쌍봉형 감독체계

- RBA*는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안정성, 결제시스템 관리
 - '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감독기능은 APRA로 이전
 - * Reserve Bank of Australia(호주 중앙은행)
- APRA와 ASIC가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
 - (APRA*) ADIs, 보험사, Superannuation에 대한 건전성규제와 감독업무 담당
 - '98년 신설되어 기존 RBA가 수행했던 건전성 감독 기능 흡수
 -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건전성기준 집행권 등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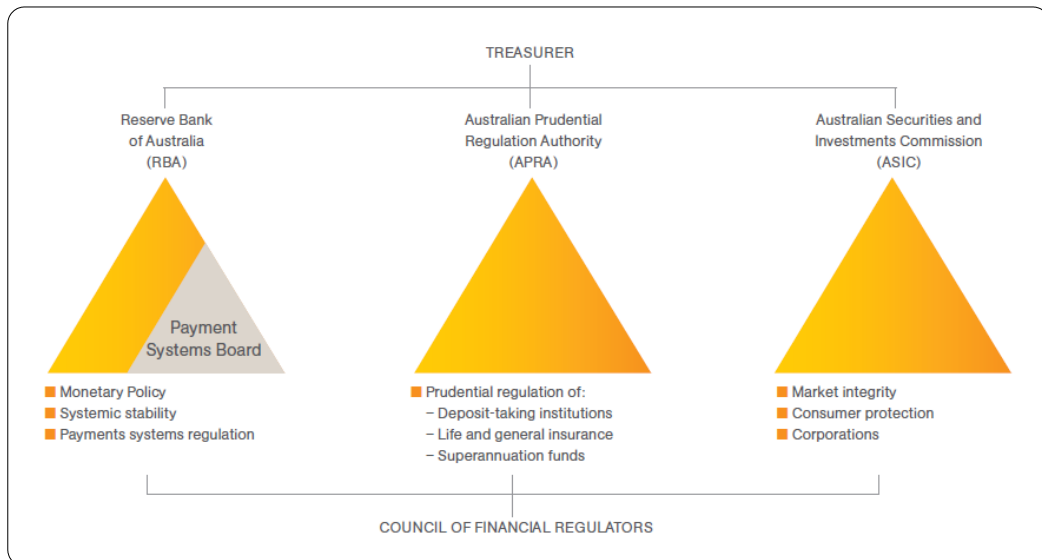
1) Richardson, D., "The rise and rise of the big banks : Concentration of ownership," Technical Brief No. 15, The Australia Institute, 2012

- (ASIC**) 기업, 시장, 금융서비스 등과 관련 영업행위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업무 담당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호주 건전성감독청)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호주 증권투자위원회)

호주의 금융규율 및 감독체계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Australian Trade Commission), “Benchmark Report 2010 : Australia, A Global Financial Services Centre,” 2010.9

- 기타 관련기관으로 ACCC, Federal Treasury(재무부) 등이 있음
 - (ACCC*) 가격고정(Price Fixing), 시장협정(Market Sharing), 보이콧 등과 같은 반경쟁적·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경쟁정책 담당
 - (Federal Treasury) 금융규제협의회**와 함께 금융부문 규제체계 결정
 -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 **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 RBA, 재무부, APRA, ASIC 고위직으로 구성

IV 국내은행 시사점

▶ 우리나라 은행산업도 ‘저성장·저금리’시대 도래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능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

- '14.1~9월중 ROA는 0.39%로 '13년(0.21%) 대비 개선되었으나 최근 10년 ('04~'13년) 평균 0.65%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NIM 하락, 수수료이익(펀드, 방카 등 대리사무수수료 중심) 원천 집중화 등에 따라

-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이익률*과 핵심이익률*도 지속 하락

* ① 구조적이익률 : (이자이익+수수료이익+신탁이익-판매관리비)/총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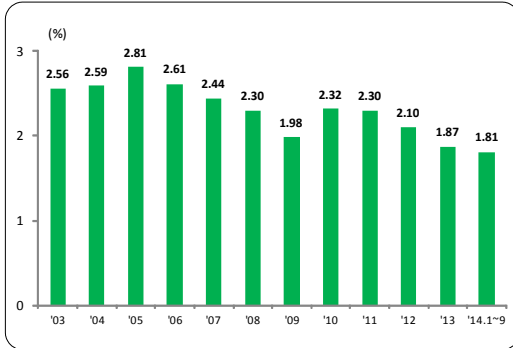
- BIS가 은행의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능력 지표로 추천

② 핵심이익률 : (이자이익+수수료이익)/총자산

금융위기 전후 한국 및 호주 은행의 수수료이익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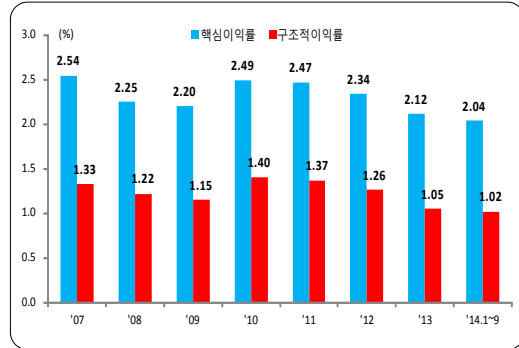
- '07~'13년중 호주 4대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CAGR 9.8%)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가운데,
 - 다변화된 비이자이익 구조로 인해 수수료이익도 연평균 3.2% 증가
- 반면 동 기간중 국내은행의 경우 수수료인하 압력 등 수익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단순한 비이자이익 구조로 인해 수수료이익은 연평균 0.7% 감소

국내은행의 NIM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구조적이익률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이에 따라 4대 은행간 경쟁, NIM 하락 등에 대응하여 비이자이익 원천 다양화와 해외진출을 추진한 호주 은행 사례를 참고할 필요

▶ 비이자이익 원천 다양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이 뒷받침될 필요²⁾

- Superannuation 도입에 따른 연기금 및 자산운용업 발전이 호주 4대 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에 기여

2) 서병호,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1 참조